

# 美출장 이재용 “여러 파트너들 만날 예정”

(삼성전자 부회장)

### 8월 출소 이후 첫 해외 방문... 반도체·백신 논의 예정 20조원 투자 파운드리 공장 증설부지 최종 확정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캐나다-미국 출장을 위해 14일 출국했다. 올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첫 해외출장이다.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모더나로부터 안정적인 백신 위탁 확보에 주력하면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전세계편으로 출국했다. 오전 7시 45분쯤 출국장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투자를 결정 짓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미국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모더나를 만

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 “(모더나 본사 소재) 보스턴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 기업 정보 전달과 관련해 미국 정부 관계자와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 등에는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의 이번 미국 출장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해외 출장 자체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출장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이전까지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경영인들과 만남을 갖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아 왔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되면서 네트워크 단절을 겪어왔다.

올해 8월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 가석



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북미 출장을 위해 14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했다.

방으로 출소했지만 네트워크 재구축엔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매주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사법 리스크’ 등이 그 배경이다.

이번 출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삼성물산 의혹 관련 재판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 주요 정·재계 인사들과 회동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출 요구 등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첫 일정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연구센터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회장은 보스턴으로 가 모더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모더나 본사가 있는 보스턴을 방문한

다고 밝힌 만큼 삼성과 모더나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모더나와 거래관계가 있는 지인을 통해 모더나사 최고 경영진을 소개받아 지속적으로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

미국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파운드리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와 오스틴 등을 공장 부지 후보지로 놓고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이 부회장은 미국에서 ICT 분야 관련 인사 등을 만나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에 나설 것으로도 점쳐진다.

강주현기자

## 중견기업 주간' 내일 개막 혁신·해외 진출 돕는다

### 산업부, 기술협력 협약식 등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기업 혁신을 지원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업 혁신, 해외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을 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6일 서울 강남구 조선 팔림사에서는 ‘중견-공공연 기술협력 협약식’이 열린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한국판 뉴딜 등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의향을 지닌 22개 중견기업이 9개 공공연구기관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하며 7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에 나서게 된다.



중견기업 주간 행사 현장 모습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그간 우리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한 중견기업인에게 정부 포상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 공로를 기념하는 성장탑과 금융기관 감사패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차 판문점-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 등을 초청해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전략 기술의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하는 알짜기업, 사람을 키우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실천하는 모범기업, 기업 개별 성장을 넘어 협력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상생기업으로 거듭나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주현기자

# “기업현장 괴리감 큰 조세제도, 현실 맞게 재설계해야”

### 상의, 조세제도 현황 보고서

### 그린수소 등 신성장 기술 불포함 7년간 업종 유지 '상속공제 대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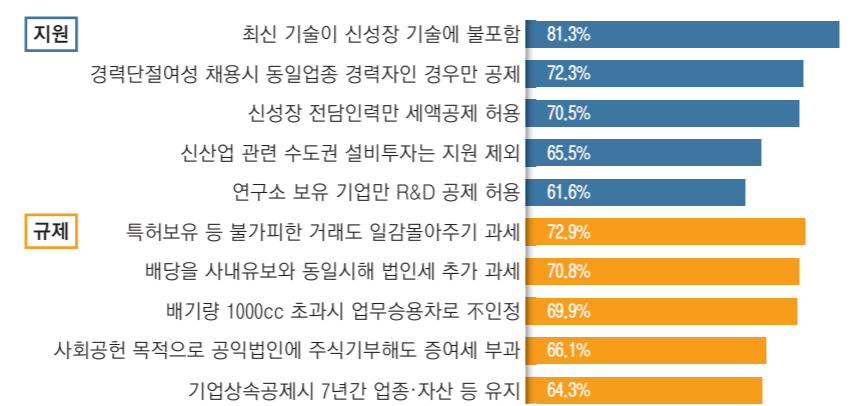
국내 조세제도 중 일부는 기업현장과 괴리되어 주요국에 비해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를 소개했다.

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나 그린수소와 같은 수소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

### 기업현장과 괴리된 10대 조세제도 (‘문제있음’ 응답비율)



자료: 대한상의

[그래픽=오동훈 기자]

다. 차세대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나,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R&D활동 세제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의 경우 ‘고도신기술산업’ R&D 우대지원 대상을 2015년 가능한

것만 나열하는 ‘Positive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기술이 모두 고도신기술로 인정된다.

또 일부의 편법을 막으려는 칸막이식 조세지원이 제도활용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

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반면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 신성장 R&D ‘전담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작년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사로 신청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지원은 197개사, 0.6%로 매우 저조했다”며 “신성장 투자를 늘리자는 제도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응답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조세지원제도의 또 다른 예로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65.5%) △연구소 보유 기업에만 R&D 공제해줘 연구소가 불필요한 서비스업 등에 불리(61.6%) 등을 함께 꼽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법상 규제도 불

편을 호소한 기업들도 있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부의 관법적 이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외국에서도 유사한 압박세를 찾기 힘들다. 게다가 계열사의 관련 특허 보유 등으로 내 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답한 기업이 72.9%에 달했다.

아울러 기업상속공제의 경우 7년간 중분류 내에서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용 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는데, 응답기업의 64.3%는 이러한 요건들이 산업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 후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응답기업들은 기업현장과 괴리되는 조세제도의 개선 과제로 ‘세법 관련 현장의 견 수렴 및 소통 강화’(98.5%)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조세제도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해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현기자



# 맛다! 게보린 낫다! 게보린

통증은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습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오한, 발열까지-통증을 빠르고 깔끔하게!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게보린만의 맞춤 케어 솔루션으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다양한 통증에도 역시 게보린!



효과 빠른 한국인의 두통약  
**게보린 정**



생리통에 더 빠른 케어 솔루션  
**게보린 소프트**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게보린 클리닉**



근육통 케어 프리미엄 진통제  
**게보린 릴렉스**

게보린정: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300mg + 이소프로필안티피린 150mg + 무수카페인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뱀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턴트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나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 광고심의필: 2021-1595-003800